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도내 시군 정보보안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시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번 평가는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 등 3개 분야 46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년 대비 점수를 상승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관을 지정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갯벌 특화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이 오는 7일 탐사르고 창갯벌센터에서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샌드아트에 관심있는 20여명을 대상으로 모래로 들려주는 고창 바다의 새 이야기 공연과 직접 손으로 느껴보는 나만의 모래 드로잉을 진행한다.

이후 갯벌로 이동해 모래갯벌을 발로 느껴보는 체험을 진행하며, 모래를 손으로 쓸어보고 모래 위에 무언가 그렸다 지웠다 해보며 바다가 주는 마음의 위로를 촉감으로 느껴보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갯벌 특화형 프로그램'은 샌드아트 치유 워크숍 이후, 21일 바다채소 치유 워크숍, 22일 바다향기 체험, 10월 3일 갯벌 숲 소호 차담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모래·바람·소리,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추석 연휴 대비 종합대책 마련

정읍시, 시민 안전·편의 최우선... 재난재해·의료 등 총 7개 분야 종합상황실 운영

정읍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연휴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난재해, 의료·방역,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총 7개 분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상황반은 매일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기관 1개소, 당직의료기관 64개소,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20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6개소를 운영해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시민들은 시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서비스 안내시스템(www.e-gm.or.kr)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AI·오피카파제열병·구제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해 농가별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점 및 통제소 운영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높아진 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내 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추석 맞이 편의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대책반도 운영해 정읍역, 터미

널, 샘고을시장 등 주요 혼잡 구역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특별 배치된다. 또한 총 66개소 2184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 도시공인 등을 정비하며, 생활환경 대책반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상하수도대책반을 편성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반 운영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곰소갯갈축제 성공·김장문화 진흥

부안곰소갯갈협회·슬지네제빵소·기독교연합회, 협약 체결

부안곰소갯갈협회는 제16회 부안 곰소갯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김장문화 진흥을 위해 슬지네제빵소, 부안군 기독교연합회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부안 곰소갯갈축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슬지네제빵소는 자사의 SNS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여 부안 곰소갯갈축제의 홍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슬지네제빵소는 매장에 별도로 갯갈축제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축제 방문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슬지네제빵소는 축제 홍보와 방문 장려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곰소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 곰소갯갈축제 성공기원과 김장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축제 기간 중 회원들이 곰소를 방문하여 김장 체험과 김장 재료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곰소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247어가 대상... 어가당 60만원씩

고창군은 총 247어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원씩 총 1억482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8어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 247어를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고창군은 농민수당도 1만766농가를 대상으로 총 64억5300만원이 지급할 예정으로 명절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존에 카드를 소유한 어가는 별도 방문 절차없

이 자동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어가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동화 속 느낌의 가을 꽃정원 기대감 UP

지난 봄 벨리컴 이벤트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고창군 꽃정원단지가 이달말 가을꽃잔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꽃정원 단지가 가을시즌을 앞두고 광활한 보라꽃 포토존 등을 만들고 있다. 9월말부터 지난 봄 시즌보다 대폭 확대된 마편초꽃을 비롯해, 혼합백일홍, 코스모스 메밀 해바라기를 볼 수 있다.

또 모양상제 기간(10월9~13일) 꽃정원 단지에선 캐릭터 게릴라 공연, 강아지 어질리티 행사,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인도교 경사로 포장공사를 진행해 유모차와 어린이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충했다.

고창군 꽃정원 단지는 약 8만㎡로 테마별 정원(상징정원, 힐링정원)과 치유터널, 마편초 등 여러 꽃들을 식재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

고 있다.

테마별 정원은 힐링공간으로 방문객들이 꽃을 바라보며 꽃말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텃밭이 있다. 치유터널은 치유농업을 하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텃밭으로 관내 노인, 장애인, 치매 환자와 함께 힐링·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꽃정원 단지는 고창읍성 중심으로 노동저수지, 자연마당 등 새로운 관광벨트 형성 위해 조성한 사업이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꽃정원 조성사업 1단계 기본 실시 설계와 측량을 통해 배수로 정비공사를 마무리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4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11곳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부안군노인요양원, 실버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반다비체육관 등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멘토링대회 부안 개최

제10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행복멘토링 대회가 부안군 번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5~6일, 1박 2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복멘토링 대회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종)와 전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김대환)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의 후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대회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윤규 회장의 특강과 공직자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한상덕 경상대학교 교수의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단찬과 함께 조별활동을 통해

직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번산반도 내 죽막마을 경치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환영사에서 "제10회 사회복지공무원 행복멘토링 대회가 부안군에서 열리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직무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